1,2,3 RUTC 응답 24 : 빛의 작품을 만드는 성도(사60:1-7) 12/11/2022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라는 선물을 주셨다.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세상을 밝히는 능력이기도 하다.

성경은 이 빛을 영적인 축복으로도 설명하셨다. 영적 세계의 타락으로 세상에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할 때 하나님은 그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빛을 허락하셨고(창1:3), 그 빛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셨다(요1:1-5).

그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빛으로 왔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했다(요1:9-10).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이 어둠의 세력과 그 어둠을 이기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다.

그 결과로 본문 2절에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덮을 것이라”고 했다. 왜 이렇게 세상은 타락하고, 사람들은 악해지고, 모든 것이 어려울까? 한마디로 하면 세상에는 온통 어둠의 영들이 만든 작품만 가득한 것이다.

어둠이 문화를 덮고, 어둠이 과학까지 덮은 것이다. 과학의 힘이 세상을 편리하게만 만든 게 아니다. 최첨단 무기들로 전쟁과 파괴가 계속되고 있다. 지구를 멸망에 빠지게 할 핵무기, 화학무기들까지 이미 만들어져 있다.

앞으로 가정 문제, 중독 문제, 정신병 문제는 심각해질 것이다. 온통 어둠의 작품들이 될 것이다.

이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작품을 만드는 자들로 쓰시겠다는 것이다.

1. 반드시 세가지 영적인 눈부터 열려야 한다.

1)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타락 이전에 영적 타락이 먼저 있었다. 영적 사실이다(창1:2).

 세상 모든 문제의 시작과 배후 속에 이 어둠의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한다(엡6:12).

2) 영적 문제를 보는 눈이다.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냐? 어둠의 영인 사단에게 속은 영적 문제이다(창3:5).

 실패하는 사람, 악한 사람, 무너지는 사람을 이 눈으로 볼 때만 우리도 살고, 그들도 살릴 수 있다.

 자기도 모르게 어둠에 잡힌 것이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쓰임 받는 자들도 그렇게 쓰임받은 것이다(눅22:53).

3) 영적 흐름을 보는 눈이다. 온 땅에 흑암이 덮을 것이라는 것이 그 말이다.

 그래서 모든 현장에 문제, 갈등, 고통이 온다(가정, 산업, 학교, 지역에까지). 어둠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2. 하나님은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빛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1)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 빛의 능력을 이미 가진 자들이다(1절).

① 빛으로 오신 그 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것이 구원의 축복이다.

 내 마음과 인생을 어둡게 하고, 어둠으로 끌고 가는 저주, 운명, 그 배후의 마귀는 나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의 자녀라”고 했다(엡5:8). 이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라.

②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둠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고 등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계21:23).

2) 이 빛의 능력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기도 망대를 내 안에 세우라는 것이다.

 망대는 왕의 소식을 전달해 받거나, 반대로 대적이 올 때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할 수 있는 곳이다.

①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라고 했다(잠언18:10).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서 안전함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시간이다.

 우리의 정시 예배, 정시 기도 시간이 그 시간이고, 혼자서 하나님과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망대이다.

 그것을 무시로 하라(엡5:18). 24시로 할 때는 3,9,3의 기도를 호흡을 깊이 하면서 하면 된다.

② 그 망대에 하나님이 직접 파수꾼을 보낼 것이라고 했다(사62:6-7).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 때, 위기를 만날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실제로 도울 자들을 보낸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세워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들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

 이것을 내 가정에도 세우고, 학교에서도 세우고, 직장과 산업체에도 세워보라는 것이다.

③ 그때 내가 있는 현장의 흐름이 빛의 흐름으로 바뀌는 것이다. 빛의 문화가 만들어진다.

 이 비밀가진 요셉과 다윗이 시달리는 왕도 살리고(창41:38, 삼상16:14-16), 빌립은 흑암에 덮힌 지역인 사마리 아를 살렸다(행8:4-8). 그 축복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3. 이때 오는 축복이 빛의 작품이다. 내 인생 속에 적어도 세가지의 작품이 만들어질 것을 약속하셨다(3-5절).

1) 내 주위로 이 빛의 축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의 작품이다(3-4절).

① 나라와 왕들까지 네가 누리는 빛으로 올 것이라고 했다. 이것이 전도와 237을 살리는 선교의 축복이다.

 많은 무리가 네게로 오고, 무너지고 죽어가던 후대들이 안겨 올 것이라고 했다. 후대 살리는 축복이다.

 나를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의 답을 얻고 살아나고, 내가 만난 후대가 인생이 바뀔 때 그보다 큰 행복이 없다.

② 그리스도를 정확히 전달하라. 빛의 능력이 역사해 그 배후의 흑암 무너지도록 기도하라.

 현장의 작품이 만들어지고, 함께 할 제자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이 다락방이고, 지교회이다.

 핍박이 와서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이 단 한번 전한 복음을 통해서도 바울 같은 제자가 세워졌다(행7:58).

2) 나의 산업이 어둠에 덮힌 세상을 살릴 만큼의 빛의 작품이 된다(5절).

 온 세상 경제가 흑암 경제, 타락 경제, 저주 경제이다. 가난한 사람은 늘 가난하고, 부자는 부자대로 무너진다.

① 단순한 경제 축복이 아니다. 네 마음이 놀라고, 기쁨으로 가득차고, 열방의 재물이 올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이 내 직장과 산업에 보좌의 축복, 빛의 축복을 부어주실 때는 내 산업이 빛의 산업이 되는 것이다.

② 흑암에 덮이고, 고통 속에 있는 237 나라를 살릴만한 빛의 경제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것이다.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 축복을 누린 것이다(창14:14, 롬16:1-2, 3-4, 16:23)

3)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작품이다(6-7절).

 하나님이 그 교회를 모든 민족이 모이고, 간증할 수 밖에 없도록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했다.

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 때에 모든 교회를 도울 수 있을 만큼의 작품이 되는 것이다.

② 교회가 무너지는 이 때에 후대까지 남겨줄 수 있는 작품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 작은 수고, 작은 헌신을 통해서 그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다.

결론-성전이 파괴되고, 후대가 포로로 끌려간 시대에 이 언약을 주셨다. 무엇에도 속지 마라. 우리는 그 어둠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들이다. 나의 망대를 세워 빛의 능력을 누리고, 빛의 작품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한다.